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 지역 중소거점 강화하며 투자 및 고용창출 확대

2021. 7. 28.

28일 쿠팡이 계룡시와 물류캠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계룡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최홍묵 계룡시장(사진 왼쪽 네번째), 김명규 쿠팡 전무(사진 왼쪽 세번째)등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계룡시와 MOU 체결 170억 투자 및 300명 이상 신규 고용 창출 추진**
-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성장 지원으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

2021. 7. 28 서울 – 올 상반기 누적 1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한 쿠팡이 전국 각지 중소 물류 거점 투자와 고용창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쿠팡은 계룡시와 물류캠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쿠팡은 계룡시에 총 170억을 투자하며 3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쿠팡과 계룡시는 지역주민의 우선채용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쿠팡은 지난 3월 전라북도(1천억원 규모)에 이어 4월 경상남도(3천억원), 5월 충청북도(4천억원), 6월 부산(2.2천억원) 등 총 1조원 이상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직접고용 일자리 총 9,500여 개 창출을 비롯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사업 지원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쿠팡은 이번 계룡시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과 중남부 권역에 물류 중소 거점을 신설 혹은 강화할 계획이다. 쿠팡은 충청권 뿐만 아니라 제주, 전주, 창원 등 전국 각 지역에 중소 거점(캠프)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쿠팡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와 더불어 중소 물류 거점에도 투자와 고용 확대를 지속하며 전국적인 물류 인프라를 보다 촘촘히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해 지역별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